



Market Index / 15일

코스피지수 ▼ 2230.98 -7.90	코스닥지수 ▲ 679.16 +0.45	유가(WTI, 달러) ▲ 58.23 +0.15	감골 평균경락가(5kg, 원) ▲ 6,700 +100	환율(원) 1USD 1177.75 100¥ 1071.51	팔매 1137.25 1034.67	1EUR 1314.46 1CN¥ 176.36	팔매 1263.18 159.58
--------------------------	-------------------------	------------------------------	----------------------------------	------------------------------------	-----------------------	-----------------------------	----------------------

제주지역 관광사업체 과당경쟁 양상

작년 日 불매운동 여파로 내국인 관광객 증가 관광사업체 2010년 996개→2019년 2051개소

지난 10년간 제주방문 관광객이 크게 늘었지만 관광업체 증가폭은 이보다 높아 내부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불매운동 영향에 따른 대체 여행지로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과 더불어 관광업체도 증가하며 과당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0년 996개에 불과하던 제주지역 관광사업체는 2019년 2051개로 급증했다.

부문별로 보면 여행업은 2010년 718개소에서 2019년 1123개소로 늘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56%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여행업 부분의 증가세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10년 88개소에 불과하던 일반여행업은 2019년 366개소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국외여행업도 95개소에서 147개소, 국내여행업은 535개소에서 610개소로 각각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17곳이 줄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소득증가

해의를 나가는 도민들이 늘었지만 여행업계는 과당경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과당경쟁이 심각한 관광숙박업도 4배 정도 늘었다. 2010년 109개소에 불과했지만 2019년 420개소에 이르렀다. 관광호텔업이 50개소에서 127개소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2010년 15곳에 불과하던 가족호텔업은 62개소로, 호스텔업도 1곳에서 165개소로 폭증했다. 휴양콘도미니엄업도 42개소에서 61개소로 증가했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33개소에서 96개소로 3배가량 늘어났다. 2010년 한곳도 없던 종합휴양업과 자동차야영장업, 일반야영장업은 각각 3개소,

22개소, 21개로 증가했다. 전문휴양업도 25개소에서 42개소 두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2010년 2곳이던 관광공연장업은 모두 사라졌다. 유원시설업의 경우 2010년 종합유원시설업은 단 한곳도 없었고 일반유원시설업 11개소, 기타 유원시설업은 1곳뿐이었지만 각각 4개소, 20개소, 49개소로 6배 이상 늘었다. 관광편의시설업 부문도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2010년 48개소이던 휴양펜션업은 2019년 101곳으로 늘었고 단 한곳도 없던 관광편의업은 7개소로 늘었다. 관광식당업도 40곳에서 150곳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김경섭기자 kks@halla.com



원산지 허위표시 "꼼짝마" 설을 앞둔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관계자들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가성비 중시... 씹씹이 줄인 여행 선호”

한국은행 제주본부, 내국인 관광객 소비행태 분석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3%로 전년 대비 '반토막'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수는 최근 늘고 있지만 1인당 지출액은 가성비 중시 여파로 감소세를 보였다. 여행 패턴도 다니는 여행보다는 머무는 여행을 선호하며 앞으로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내국인 관광객의 제주지역 소비행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민을 포함한 제주지역 신용카드 사용액은 2017년

중반까지 14%대의 고성장을 유지했지만 같은해 하반기부터 급락한 후 2018년부터 평균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내국인 관광객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2018년 6%대의 성장률에서 지난해 3%대로 '반토막' 신세다. 최근 주력 관광 연령대로 부상한 밀레니엄 세대(1981~2000년 출생, 21~40세)가 일명 "다니는 여행"보다는 "머무는 여행"을 선호하고 가성비 중시함에 따라 전체 관광객의 지

출 증가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맛집여행이나 문화관광을 중심으로 내국인 관광객의 1인당 식음료비가 늘고 있지만 숙박비 및 쇼핑비 등의 지출경비는 줄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른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의 1인당 지출경비는 2015년 57만원, 2016년 59만원, 2017년 54만원, 2018년 51만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되레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숙박업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과당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에 더해 제주한달살기 등 장기체류 관광객이 늘면서 숙박업에 대한 신용카드 지출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백규탁기자

올 설 차례상 비용 23만원 도내 재래시장 조사 결과

제주상공회의소는 올해 설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23만4900원으로 지난해의 23만5130원에 견줘 0.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10월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월동채소의 파종지연에 따른 채소류와 어획량 감소에 의한 생선류의 물가는 모두 올랐지만 과일류 및 가공품의 가격은 내리면서 상쇄 효과를 내고 있다. 과일류 7개 품목의 구입비는 지난해 설 명절 대비 1.9% 하락한 5만6050원이다. 나물채소류 7개 품목의 구입비는 작년 설보다 3.8% 오른 2만7390원이다. 육고기, 계란, 해산물류 등 6개 품목에 대한 구입비는 작년 설에 견줘 2.4% 상승한 11만2780원이다. 가공식품류 6품목의 구입비는 1년 전보다 6.6% 하락한 3만8680원선이다. 채소는 고사리를 제외하고 시금치, 콩나물, 애호박, 도라지, 무 등의 가격이 대체적으로 올랐다. 육류도 소고기 산적등심을 제외하고 작년보다 가격이 대부분 뛰었다. 육통(9.4%)과 동태포(10.3%)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과일은 감·곶감이 오른 반면 사과, 배, 귤, 대추, 밤 등이 모두 내렸다. 가공품인 밀가루, 두부, 청주, 떡류 등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백규탁기자

주간 재테크 핫 이슈 위안화 절상과 이머징 시장

위안화 강제·이머징 경제도 긍정 시각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위안/달러 환율이 6.9위안을 하회하면서 위안화 강제 기조가 진행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올해 인민은행 고시환율을 지속적으로 절상시키면서 위안화의 절상(위안/달러 환율 하락)을 진행시키고 있어 추가강화는 위안화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월부터 지속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가파르게 절상시키는 배경으로는 일단 15일 예정되어 있는 미중 1단계 무역협상 서명 기대감을 들 수 있다. 서명식에 대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10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는 완료됐으며 서명식은

인 시기가 강화되고 있기도 하다. 1단계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 되면 위안화 절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위안화의 추가 절상은 국내 등 이머징 경제와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 합의 내용 중 환율 부문에서는 환율 정책 투명성 제고 조치를 약속하고 경쟁적 환율 절하를 제한하는데 합의했기에 중국이 일정 수준에서의 위안화 절상을 용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급격한 위안화 절상은 이뤄지기 어렵겠지만 위안화 가치의 점진적인 절상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안화 절상이 유지가 된다면 미중 무역협약의

이란발 리스크 진정·미중 무역갈등 완화 분위기 외국인 자금 국내 주식시장 순유입 가능성 높아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서명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최근 중국경기가 안정화 되고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면서 위안화 절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안 이머징 시장에서 우려감이 있던 중국경기 둔화 흐름이 진정되고 있으며 이후 1단계 무역합의 이후에는 경기 모멘텀이 강화되고 중국정부가 중국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위안화 강세의 원인이다. 거기에 최근 이란발 리스크도 진정되면서 글로벌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경기 반등이 기대되는 이머징 경제로 유입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어 위안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JP모건의 분석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전망을 지난해보다 낙관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 완화 및 IT 사이클 회복에 힘입어 아시아 등 이머징 경제에 긍정적

원만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장에 알려주는 일종의 시그널 역할을 하게 되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위안화 절상의 경우에는 원화 절상과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아 동시에 외국인 자금이 주식시장 순유입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안화 절상이 무역협약의 시그널로 작용하는 만큼 국내 수출과 국내 경제 펀더멘털의 회복을 의미하게 되며 반도체 업황을 위시한 주요 수출업의 회복은 국내증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안화 절상기조는 중국 경제 안정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분다면 전반적인 이머징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정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그랜드보청기

설날맞이대행사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삼촌들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제주도내 보청기 파격할인!!!

-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 고급 보청기 1+1(하너더드림 행사)
-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뽕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문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웅웅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야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내선전기 실무자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상 - 모집 초기 마감될수있음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근시일 모집 마감**

교육기간
1월 30일 ~ 8월 21일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선,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 마감일 : 근시일 접수 마감예정

취업 7월 23일 종료과정 2명중 20명 취업
미취업자 취업 협의중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w.com

- 제목: 국비지원 (세무회계자격증(FA기급) 취득과정 훈련생 모집
- 대상: 근로자/실업자/일반 회계초보자
- 기간: 1:29~4:22 ■ 시간: 19:00~22:00 월~목 주4회
- 문의: 054-742-9175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